

박여범의 소소한 일상

바보스레

바보'는 '보통 사람들보다 어리석고 멍청한 데가 있다'는 의미다. '-스레'는 일부 어근 뒤에 붙어, '그런 성질이나 느낌이 있는 상태'의 뜻을 더하여 부사를 만드는 말이다. '아저씨는 하나 있는 아들이 바보여서 평생을 눈물로 살아왔다.' 여기에서 '바보'는 '지능이 부족하고 어리석어서 정상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 '어리석고 못나게 구는 사람을 알잡거나 비난하여 이르는 말'이다.

'바보처럼 굴다', '너를 믿은 내가 바보지', 유익어르는 '등신(等神)', '맹꽁이', '맹추', '머저리', '먹통', '멍청이', '백치(白痴)', '얼간이', '천치(天癡)가 있다. '날 때부터 못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어쩔 수 없다'는 말로는 '바보는 약으로 못 고친다'가 있다. '날 때부터 어리석은 사람의 기준



박여범

윤북중학교·시인 문학박사·문학평론가

은 누가 만들었는가, 그리고, 그 기준이 다 옳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저마다의 기준의 해석은 다양하다. 물론, 오랜 기간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낸 결과이기에 무시할 수도 없는 데이터임은 분명하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다. 그것은 바로 현실이 '바보스레'를 원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누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많은 사람이 '바보스레'가 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어찌 보면, '바보스레'가 더 자유로울 수 있다. 왜냐하면, '시키는 것만 하면' 된다. 시각을 달리해서 바라보면, 현대인이 원하는 '단순한 삶'의 기본형태가 '바보스레'가 아닐까 한다.

이 얼마나 단순하고 명쾌한 결론인가. 시키는 것만 하고, 나머지 자

유 시간을 '천재스레'로 살면 된다. 참으로 지혜롭고 현실적인 삶의 대처방안이다.

그러나 어딘가 허전하고 씁쓸하게 뒷맛이 개운치가 않다. 알고도 모르는 척 해주어야 하는 상황이 산재한 현실이다.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그 굴레를 벗어나기는 쉽지 않다.

개인의 문제에서부터 가족의 문제, 직장의 문제까지 정말 선의의 거짓말이 많은 부분을 자리 잡고 있다.

이처럼, 세속적으로 물들어가는 내 자아를 바라보는 심정은 씁쓸하기만 하다. 그래도 위안이 되는 것이 있다. 바로, 나의 선의의 거짓말로 인해 그나마 조식이 원활하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언제부터인가 '바보스레'가 되어 살고 있다. 씁쓸한 현실이다.

사설

검찰개혁이 절실한 이유

중고계 100인이 지난해 12월 검찰개혁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천주교 사제·수도자 4000여명도 검찰개혁 지지에 동참하고 나섰다. 중고계 100인은 천주교·개신교·원불교·불교로 구성됐다.

사실 특권층의 비리와 범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눈감아 주는 것이 현실이다.

반면 자신의 이해와 맞지 않으면 어떤 상대라도, 거침없이 울가미를 들고 달려드는 통제 불능의 폭력성도 여전하다. 검찰개혁은 오랫동안 지체되어 온 숙원이다.

검찰 개혁이 절실하다는 국민 여론이 여전하다. 그러나 다량위 채택이 될 듯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 시도되었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 다시 시도되었지만 모두 실패했다.

당시에는 시민들의 개혁 필요성에 대한 체감도가 강력하지 못했고 의회 내의 개혁 동력도 낮았다. 청와대, 행정부, 의회 내에는 검찰이나 법률가 출신들이 많다.

이들은 검찰과 동업자 관계다. 검찰이 로비를 하면 검찰 개혁은 약화된다. 권력형 비리 사건에 대해 형직 권력의 눈치를 보아 눈감아준다.

전관예우 척결, 검찰 내부 검찰 기관 개혁도 중요한 과제다. 전관 변호사 문제는 여전하다. 검찰도 문제다.

어차피 대총 수사한 후 검찰로 부터 송치하라는 명령을 요령껏 받아내 송치하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크다.

현행 형사 사법 제도는 경찰이 소극적으로 일하고 결국 책임은 검찰에 미루게 되는 구조다. 적폐를 수십 년 간 쌓아온 곳이 검찰이다. 정치에 몰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대표적으로 무시해온 곳이다.

국민 위에 군림하고 권력에 봉사하는 검찰은 안 된다.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권에 따라 카멜레온처럼 변하는 정치검찰은 막아야 한다.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은 절대 스스로 개혁되지 않는다. 강력한 개혁 의지가 절실하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우크라이나, 독립기념 행진 군견 참여 '사상 처음'



우크라이나 독립기념일을 며칠 앞둔 18일(현지시간) 수도 키예프에서 한 우크라이나 병사가 페레이드 시전 연습을 앞두고 군견 한 마리를 인양하고 있다. 오는 24일 독립 30주년을 맞은 우크라이나는 기념식 역사상 처음으로 군견들이 퍼레이드에 참여한다.

호주 수송기 탑승한 아프간 철수민들



18일(현지시간) 아프가니스탄 카불의 히미드 카르자이 국제공항에서 아프가니스탄 철수민들이 호주 방위군의 구조용 수송기에 탑승해 앉아 있다. 호주 정부는 호주 국민 130여 명과 그 가족 그리고 호주 군인, 외교관들을 위해 통역 등의 역할을 해온 아프간 국민을 아프간에서 철수시킨다는 방침이다.

전북도의회 청렴교육의 의미

전북도의회가 최근 도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신설되는 의회 청렴을 위한 선출직 공직자 맞춤형 청렴교육을 했다.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청렴연수과정으로 진행됐다.

이해충돌방지법과 의원 행동강령 등 지방의회 의원이 알아야 할 반복돼 주요 법령 내용에 대해 특강이 있었다. 청렴에 대한 이해와 실천을 강조하기 위해 문화예술프로그램도 선보여 청렴을 주제로 한 판소리와 서예 프로그램도 소개됐다.

청렴특강에 앞서 진행된 청렴 서약식에서 의원들은 ▲법과 원칙 준수와 청렴한 사회 실현에 솔선수범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을 통한 공익 수호 ▲직위를 이용한 금품·향응의 수수 및 권한 남용, 이권 개인과 앞선 청탁 금지 ▲공직 수행과정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을 사적 이익 추구에 이용하지 않을 것 등을 다짐했다.

여전히 선출직 공직자를 위한 맞춤형 청렴교육이 절실하다는

여론이 많다. 청렴교육을 통해 청렴의 가치를 상기하고 인식해야 한다.

부패는 정의 실현을 가로막는 중요한 사회악이다. 경제적 손실, 시민 의식의 발달 저해, 국가 신인도 하락과 같은 해악을 낳는다. 이는 청렴교육이 필요한 이유다. 우리는 예로부터 청렴한 공직자를 청백리(靑白吏)라고 부르며 칭송했다. 오늘날에도 개인적, 사회적 차원의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청렴문화 정착에 힘쓰고 있다.

건전한 청렴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반복해, 청렴교육을 시행하는 청렴연수원을 개원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오늘날에는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직자 재산 등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청렴문화 풍토 조성을 위해서는 국민은 물론 시민 단체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여야 한다. 함께 참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단순히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것을 넘어셔야 한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